『종교와 문화』 제 39호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20. pp. 1-34.

성인전(聖人傳)의 관점으로 본 전북 지역 초기 개신교 신자들의 이야기

김 민 아*

Ⅰ. 서론
Ⅱ. 성인전으로서의 전북 초기 개신교 신자들 이야기
Ⅲ. 고난의 유형으로 본 초기 개신교 신자들 이야기
1. 개인적 질병의 고난
2. 배교 강요로 인한 고난
3. 사회적 지위로 인한 고난
4. 사회 개혁 실패로 인한 고난
5. 부당한 현실로 인한 고난
Ⅳ. 결론

Ⅰ. 서론

세계 그리스도교 중에서 천주교, 정교회, 성공회, 루터교 등은 성인(聖人)을 구별되게 인식하고 그들을 공경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들 종교에서 '성인'이라는 호칭은 성덕(聖德)이 뛰어난 사람들에게 붙여진 것으로, "엄밀한 의미에서의 성인은 생존시에 영웅적인 덕행(德行)으로써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어, 교회가 보편적인 교도권(敎道權)에 의해 성인으로 선포하는 사람들, 또는 '성인록'에 올라, 장엄한 선언에 의해서 성인으로 선포된 분들을 가리킨다."[1] 반면, 개신교에는 성

* 인천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연구중점교수

인들에 대한 인정이나 공경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16세기 마틴 루터(Martin Luther)는 천주교의 성인 숭배를 우상 숭배라고 비판하였고, 개신교 신학은 이를 계승하여 성인이 살아있는 신자들을 위해 중보(仲保)를 한다거나 축복을 한다는 개념을 거부한다.[2] 따라서 개신교에는 성인전(聖人傳)이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개신교에도 신앙의 모범이 되는 인물들의 행적을 기록하여 반복적으로 읽고 되새기는 전통이 있다. 역사적으로 높이 평가받는 인물이나 유명한 사람의 고백록이나 간증문을 읽고 그것으로부터 종교적 가르침을 얻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성인 혹은 성인전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뿐이지 '신앙의 영웅'들을 기리고 그들의 삶을 모범으로 삼고자 하는 노력은 개신교 안에서도 지속적으로 존재했던 종교 활동의 한 형태이다. 천주교 신자들이 성인전을 읽는 이유가 스스로 성인의 행적을 공부하고 그로부터 삶의 모델을 발견하여 견고한 신앙, 전교(傳敎)에 대한 열성, 극기와 겸손, 정결과 결백 등의 덕행을 본받기 위해서라는 점을 고려하면,[3] 개신교에도 성인전을 읽는 것과 같은 의미의 종교적 실천이 행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성인전은 신앙의 모범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종교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특징도 가진다.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공유한다는 것은 하나의 해석 공동체를 창조하는 것으로, 그것을 통해 종교적 · 문화적 결속이 강화된다.[4] 그리고 이러한 종교적 · 문화적 공동체는 당대 사회와 깊은 상호작용을 한다. 따라서 성인전을 통해 특정 시기, 특정 지역의 사회적 관습과 문화를 살펴볼 수 있다. 초기 개신교사의 중요한

---

1) 한국가톨릭대사전 편찬위원회 편, 「성인」, 『한국가톨릭대사전 7』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2004), 4751.

2) Robert L. Cohn, "Sainthood," *Encyclopedia of Religion* vol. 12, Lindsay Jones ed. (Farmington Hills: Cengage Gale, 2004[1987]), 8034; 조기연, 「순교자 · 성자 공경에 대한 한국 개신교회적 이해」, 『신학과 실천』 30 (2012): 91, 108.

3) 김정진, 『가톨릭 성인전』 上 (서울: 가톨릭, 2006), 17; 김정경, 「조선 후기 천주교 성인전 연구」, 『한국학』 40/1 (2017): 224-227.

4) 제롬 브루너(Jerome S. Bruner), 『이야기 만들기: 법, 문학, 인간의 삶을 말하다』, 강현석 · 김경수 역 (파주: 교육과학사, 2010), 51.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 또한 이러한 기능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개신교사의 영웅들, 특히 개신교사의 첫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고 그것의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신앙 공동체가 형성 및 지속된다. 이 과정은 일회적이지 않다. 해석 공동체로서의 종교적 · 문화적 결속은 초기 개신교 신자들의 이야기가 서술되던 당시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가 의미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공유되는 현재에도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개신교사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 인물에 대한 풍부한 이야기들을 통해 당대의 신앙이나 관습, 사회적 인식 등을 살펴볼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개신교의 특정 인물에 대한 이야기들은 교리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실천적으로 성인전의 의미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전북 지역 개신교의 초기 한국인 신자들에 대한 기록이 사료의 성격을 넘어서 일종의 성인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처음' 한국인 신자들에 대한 종교적 진술들을 유형화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개신교사 자료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개신교사에 포함된 이야기들을 성인전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 이야기에 담긴 사건이 일어난 당시의 풍경을 그려보는 것에 더해, 현재 그것을 공유하는 독자들의 위치와 역할도 고찰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북의 개신교사를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리 혹은 기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개신교 신자들에게 종교적 교훈을 전달하고 그들이 따라야 할 삶의 모범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할 목적으로 서술된 서사로 보고자 한다. 초기 한국인 신자들의 이야기를 성인전의 관점으로 접근할 때, 당시 개신교인들이 처한 고난과 그것의 극복 과정을 생생하게 그려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독자로서의 현대 개신교인들이 역사 속에서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여기는 신앙의 가치들을 적극적으로 기억하고 공유하고자 하는 노력을 읽어낼 수 있다.

전북 지역 개교회의 역사기록물이나 전체적인 개신교사 자료들을 살펴보면 처음으로 개신교 신앙을 수용하여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가 되는 인물들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이들의 이야기는 교회의 설립과 성장, 3.1운동이나 한국전쟁과 같은 시대적 국면에서 개신교회가 담당한 역할, 교단 분열을 둘러싼 갈등 등 역사적

사실을 기록할 때와는 사뭇 다른 문투와 표현으로 서술된다. 전북 개신교 초기 한국인 신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소설 작품처럼 상세한 묘사와 격정적인 감정 표현을 특징으로 한다. 특정 개인의 행적에 대해 서사(narrative)를 가진 이야기로 서술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익산 동련교회의 90년사 집필 목적에서 잘 설명되고 있다. 집필자인 연규홍은 "몇몇 목회자나 눈에 보이는 교회의 현상적 구조와 성장 실체를 위주로 인간들의 움직임을 나열"하지 않고 "신앙공동체의 삶과 성령의 종말론적 역사를 찾고자" 하는 것이 개교회사의 역사서를 집필하는 목적이라고 밝혔다.[5] 개교회사는 사료라기보다는 신앙의 교훈을 기록하여 후대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공동체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서술된 자료라고 볼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특정 인물의 삶에 대한 감동적인 스토리텔링이 개교회사의 집필 목적을 제대로 구현하는 방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

전북 지역에 개신교가 본격적으로 들어온 것은 1892년 10월 17일 미국 남장로교회(PCUS, 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 선교사들이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선교사들은 전도를 통해 새 신자를 얻어 교회를 세우고 더 나아가 이들을 호남 교회의 첫 토착인 지도자로 만들었다.

호남 지방에 첫 선교사로 들어온 사람들은 테이트(Lewis Boyd Tate, 최의덕), 레이놀즈(William Davis Reynolds, 이눌서), 전킨(William McCleery Junkin, 전위렴), 레이번(Mrs. Mary Leyburn, 전마리아), 매티 테이트(Miss Mattie Samuel Tate, 최마태), 데이비스(Miss Linnie Fulkerson Davis), 볼링(Mrs. Patsy Bolling)이다. 이들을 '7인의 선발대'(Seven Pioneers)라고 부른다.[6] 데이비스 선교사가 1892년 10월 17일 제일 먼저 제물포항에 도착했고, 뒤이어 11월 3일 테이트 남매와 레이놀즈 · 볼링 부부, 전킨 · 레이번 부부가 제물포항에 상륙했다. 1893년 9월 2주 동안 선교사

5) 동련교회역사편찬위원회, 『예수꾼의 뚝심: 동련교회구십년사』 (익산: 동련교회, 1992), 11.

6) 이수진, 『호남선교 100년과 그 사역자들』 (서울: 고려글방, 1992), 23; 주명준, 『전북의 기독교 전래』 (전주: 전주대학교출판부, 1998), 6.

테이트와 전킨이 전주에 파송되어 답사를 수행하였고, 이후 1894년 2월 테이트 남매가 전주의 첫 선교사로 들어왔다.[7] 각 선교사들은 자신이 담당한 선교 구역에서 최초의 신도들을 세워 이들을 조사(助事, helper)로 훈련하였다. 조사들은 현지인의 입장에서 선교사들의 활동을 도왔고, 선교사의 지도하에 교회를 맡아 한국인 신자들을 가르치기도 하였다. 이들은 심방하고 설교하는 일에 그치지 않고 교회 밖으로 나가 노방 전도, 개인 전도를 하였고 장날에는 장에 나가 신앙서적을 판매하는 매서인(賣書人)의 역할도 하였다.[8] 이들은 후에 장로가 되기도 하고 신학교를 졸업하여 목사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초기 한국인 신자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설립되었다.

본 논문은 개신교 선교사들이 전북에 처음 들어온 1892년부터 1910년 한일 합병 이전까지의 개신교사 중에서 초기 개신교 신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기록들을 살펴보았다. 선교사의 기록뿐만 아니라 개교회의 역사기록물, 전북 지역 개신교사 자료 등에서 공통적으로 비중 있게 서술되고 있는 특정 인물들의 이야기를 유형화하여 분석하였다.

II. 성인전으로서의 전북 초기 개신교 신자들 이야기

성인전에 대한 연구는 20세기 중반부터 서양에서 본격화되었으며 특히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개별 성인에 관한 사료를 모아 전기를 서술하는 차원을 넘어, 역사적 비평, 사회학적 분석, 유해 숭배에 대한 종교적 · 정치적 차원에서의 분석 등 성인전에 대한 학제간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9] 그러나 국내에서는 성인

7) 이수진, 『호남선교 100년과 그 사역자들』, 28; 안영로, 『전라도가 고향이지요: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의 눈물과 땀의 발자취』 (서울: 쿰란출판사, 1998), 29.

8) 개복교회 역사편찬위원회, 『개복교회 110년사: 1894-2004』 (서울: 개복교회, 2004), 207; 유요한, 「한국 개신교전통의 경전읽기에 나타난 수행적 발화: 종교의례로서 성경읽기의 비교종교학적 설명」, 『인문논총』 59 (2008): 9.

9) 김윤성, 「조선후기 천주교 성인공경에 나타난 몸의 영성」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전에 대한 연구가 천주교 교회사나 신학사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며, 근래에 들어 종교학자 및 국문학자들에 의해 한국 천주교 성인전의 서지 정리 및 서사 분석을 통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논문은 성인전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지만, 성인전의 관점에서 개신교의 초기 이야기를 다룸으로써 성인전에 대한 접근을 다각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주로 성인전이라고 하면 순교나 기적을 중심으로 성인이라 인정받는 인물의 일대기를 서술한 것을 가리킨다. 천주교 성인의 이야기는 주로 "신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 살다가 지금은 천상에서 거하고 있는 허다한 성인들의 무리에 관한 이야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원형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10] 그런 점에서 성인전은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당대의 상황에 맞게 '번역'하여 전달하는 이야기라는 설명도 가능하다.[11] 이처럼 무수히 많은 개별 성인들의 이야기로부터 구조적 공통점을 도출할 수 있다. 김정경은 1738년 간행된 드 마이아(J. M. de Mailla) 신부의 『성년광익』 한문본을 토대로 하여 새롭게 작성된 한글본 『성년광익』을 분석하면서 천주교 성인전의 보편적인 구조를 정리하였다. 그에 따르면, 성인전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① 인물 소개, ② 수양과 극기, ③ 시련과 극복, ④ 교화, ⑤ 치명·승천, ⑥ 사후 이적"으로 구성되어 있다.[12] 여기에서 "⑤ 승천"은 신이 성인들의 승천 날짜를 묵시(默示)해주는 것을 의미하고, "⑥ 사후 이적"은 성인들이 죽은 후 무덤에서 이적들이 무수히 일어났다는 후일담으로 성인전이 마무리된다는 것을 뜻한다.[13] 이 구조에서 중요한 것은 '이적'이다. 김정경은 성인이 성인으로 인정받고 성인전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의 이야기 속에 기적이 있어야만 한다고 지적한다.[14] 성인전은 "그때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났음을 전하는 이야기"인

2003), 7.

10) 김윤성, 「초기 한국 가톨릭의 성인 전기: 서지 및 구조적 특성을 중심으로」, 『교회사연구』 15 (2000): 73.

11) Rober L. Cohn, "Sainthood," 8034.

12) 김정경, 「조선후기 천주교 성인전과 순교일기의 비교 연구 – <성년광익>과 <기해일기>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39 (2017): 334.

13) 김정경, 「조선 후기 천주교 성인전 연구」, 225, 229-30.

것이다.[15]

천주교의 성인전에서 기적이 중요하다보니 어떤 사람이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적을 제시하는 주체인 신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16]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수양과 극기", "시련과 극복", "교화"를 개인적으로 훈련하고 노력할 수는 있지만 어떠한 기적이 나타날 것인지, 그것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 과연 기적이 일어나긴 할 것인지의 결정 여부는 전적으로 신의 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인은 신에 의해 선택받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김정경은 "성인의 의지와 행위가 중심이 되는 '시련과 극복'보다 '기적'이 더 핵심적인 사건으로 제시되는 것"이 성인전의 특징이라고 말한다.[17]

그러나 전북의 개신교사에 수록된 초기 개신교 신자들의 이야기에서는 기적보다는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려는 주인공의 의지와 노력이 강조된다. 천주교의 성인전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은 주로 "⑤ 치명 · 승천" 때나 "⑥ 사후 이적"에서다. 그래서 박해시기 조선의 천주교 신자들은 성인의 삶을 따라 "자신의 죽음을 성취해야만 하는 목표로 인식하고, 자신의 삶을 순교를 향한 일방향의 서사로 의미화했다."[18] 그러나 전북 지역 초기 개신교 신자들은 죽음을 목표로 삼지도 않았으며, 죽음을 통해 자신의 종교적 믿음을 증명할 필요도 없었다. 조선의 개신교 수용은 천주교와는 달리 정부에 의한 박해의 위협이 사라진 상황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1882년 5월 22일 한미(韓美)수호통상조약, 6월 6일 한영(韓英)수호통상조약, 6월 30일 한독(韓獨)수호통상조약, 1884년 6월 26일 한이(韓伊)수호조약, 6월 4일 한불(韓佛)수호조약이 차례로 체결되면서 조선에서 신앙의 자유가 허용되었던 것이다.[19] 다만 유교 전통이 강한 전북 지역에서 처음 개신교 신앙을 받아들일 때

14) 김정경, 「조선 후기 천주교 성인전 연구」, 234-35.
15) 김정경, 「조선후기 천주교 성인전과 순교일기의 비교 연구」, 355-56.
16) 김정경, 「조선후기 천주교 성인전과 순교일기의 비교 연구」, 342.
17) 김정경, 「조선후기 천주교 성인전과 순교일기의 비교 연구」, 344.
18) 김정경, 「조선후기 천주교 성인전과 순교일기의 비교 연구」, 354.
19) 전주서문교회 100년사편찬위원회, 『전주서문교회 100년사: 1893-1993』 (전주: 대한예수교장로회 전주서문교회, 1999), 66-67.

겪었던 고난과 시련이 개신교 신자들의 이야기에서 중심을 차지했다. 그리고 이 고난과 시련을 개신교 신앙을 통해 극복하여 더 나은 존재가 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려는 주인공들의 의지와 행위가 초기 개신교 신자들의 이야기에서 부각된다.

천주교 성인전에서는 죽음 이후 여러 기적이 일어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데 반해, 전북 지역 초기 개신교 신자들의 이야기에서는 명망가가 된 후손이나 지역 사회에서의 영향력을 언급함으로써 주인공의 행적을 기리고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다. 전주의 최초 교인 중 한 명이었던 김창국(金昶國)의 경우, 그가 가르친 학생 가운데 임영신(任永信)이 있는데 그는 전주기전여학교를 졸업한 후 3.1운동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었으며 해방 후 초대 상공부 장관을 지내고 현 중앙대학교의 설립자이기도 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김창국의 부인인 양응도는 광주 YMCA(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의 초대 회장이었고 자녀들은 대학 교수 및 중등학교 교장 등을 역임하였음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김창국 이야기의 마지막은 "유난히 눈빛이 영롱하여 한 선교사와의 만남이 있었고 이 지역에 복음의 씨앗이 되어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한 김창국 목사님, 그 이름 영원하라."로 마무리된다.[20] 초기 개신교 신자들의 이야기를 설명하는 문구가 대부분 "복음의 씨앗"이라는 점만 봐도, 이들을 통해 전북 지역에 개신교가 자리 잡고 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이들의 행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고 추론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천주교의 성인전과 비교하였을 때 전북 지역 초기 개신교 신자들의 이야기는 체험의 독특성보다는 모범적인 개인의 사례를 제시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치 소설 작품과도 같이 신자의 모범적인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들에게 감동을 불러일으키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신앙의 영웅들'의 삶을 지속적으로 확장 및 재생산하고자 하는 것이다.

---

20) 이경, 『봉상교회 100년사론』 (원주: 봉상교회 100년사출판위원회, 2004), 247-48.

Ⅲ. 고난의 유형으로 본 초기 개신교 신자들 이야기

전북 지역 초기 개신교 신자들의 이야기에서는 고난 극복의 서사가 핵심을 이룬다. 이 장에서는 이들이 겪는 고난의 유형을 나누어 이에 대한 극복 양상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초기 개신교 신자들이 처한 고난과 시련의 상황은 크게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개인적 고난은 질병의 고난과 배교 강요로 인한 고난으로, 그리고 사회적 고난은 사회적 지위로 인한 고난, 사회 개혁 실패로 인한 고난, 부당한 현실로 인한 고난으로 다시 유형화해볼 수 있다.

1. 개인적 질병의 고난

질병을 계기로 하여 개신교를 만나고 이를 통해 치료된 이야기가 있다. 전주의 김창국과 김응규(金應圭)의 이야기가 여기에 해당한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의 여파를 피해 잠시 서울로 철수했던 미국 남장로교회 출신 선교사들은 이듬해 1895년 다시 전주로 들어와 선교 활동을 이어갔다. 이후 테이트 선교사를 중심으로 1896년 전주에 호남 최초의 개신교회인 전주교회(현 전주서문교회)가 설립되었고 1897년 여름 전주 지역 최초의 세례식이 개최되었다. 두 명의 남성과 세 명의 여성이 대상이었는데, 이 중 김창국은 이후 목사가 되기까지 했다. 세례 당시 김창국은 13세의 소년이었다. 해리슨(William Butler Harrison, 하위렴) 선교사가 테이트를 도와 전주 자신의 집에서 약국을 운영할 때, 어떤 할머니가 한 소년을 업고 왔다. 그 소년의 등에는 큰 침이 꽂혀 있었다. 등에 종기가 나서 한의사였던 그의 아버지 김제원(金濟元)이 등에 침을 꽂아 놓았던 것이다. 해리슨은 침을 뽑고 약을 조제해 먹인 후 상처 부위에 약을 발라주었다. 한 달 가량의 치료 후 그 소년은 깨끗하게 나았다. 이때부터 그 소년의 어머니가 소년을 데리고 전주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첫 세례식 때 함께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소년이 바로 김창국이다. 그는 테이트 선교사의 사동(使童)이 되었고 일요일에는 해리슨 선교사를 도와 아이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21]

1900년 전주신흥학교 제1회 학생이 되었고, 호남인으로서는 최초로 평양 유학을 하여 숭실중학교를 졸업했다.[22] 1915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후 1917년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되었고, 1922년에는 광주금정교회(현 광주제일교회), 1924년에는 광주양림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일했다.[23]

매커천(Luther Oliver McCutchen, 마로덕) 선교사의 조사로 무주, 용암, 장수 등지에서 교회를 세우고 돌본 김응규는 1876년 5월 29일 전북 전주부(府) 남 삼계리에서 부농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큰 사업을 하는 동생을 통해 선교사들과 친분이 있었다. 1905년 중병에 걸려 많은 돈을 들여 치료를 했으나 차도가 없었을 때 개신교 신앙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 선교사로부터 쪽 복음서를 구입하여 읽기 시작했다. 그해 11월 매커천 선교사와 함께 자신의 집에서 일주일간의 사경회를 열었고, 1906년 5월 세례를 받았다. 이후 자신의 재산으로 마을에 어전리교회를 세웠다. 그는 이후 병이 나아 1959년 84세까지 장수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24]

오랜 습관과 깊이 뿌리 내린 유교나 토착종교를 버리고 당시로서는 낯선 개신교를 받아들이는 것은 고통스러운 질병으로부터 치료되는 것과 같은 극적인 계기가 필요했을 것이다. 특히 당시 한국의 의학 지식과 의료 기술의 발달은 매우 미미했기 때문에 서양 의술을 통한 효과적인 질병 치료는 개신교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을 낳았다. 전북 지역 초기 선교사들 중 의학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상당수에 달했고 이들이 세운 근대식 병원들은 현재까지도 전북 지역의 대표적인 의료 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전북 지역에 많은 의료 선교사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당시 한국인들이 서양 의술을 통한 질병의 치료를 계기로 처음 개신교를 접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창국과 김응규의 이야기를 통해 당시 전북 지역의 사람들과 서양 개신교 선교사들이 서양 의학을 매개로 하여 소통하였음을 알 수 있다.

김창국과 김응규의 이야기는 개신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병이 나았다는 내용을

21) 이경, 『봉상교회 100년사론』, 246.

22) 안영로, 『전라도가 고향이지요』, 34-37.

23) 이수진, 『호남기독교 100년사: 전북편』 (서울: 쿰란출판사, 1998), 45.

24) 이경, 『봉상교회 100년사론』, 320-22.

담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신에 의한 기적의 발현이라기보다는 서양 의술을 통한 합리적인 치료법의 적용으로 설명되고 있다. 선교사를 통해 서양 의술을 접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개신교 신앙을 수용하는 주인공들의 노력을 발견할 수 있다.

2. 배교 강요로 인한 고난

천주교 박해사에서처럼 정부로부터의 박해는 없었으나, 유교 전통이 강한 당시 사회에서 개신교를 처음 받아들인 사람들은 가족으로부터 신앙을 버릴 것을 강요받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주인공이 학식 있는 양반 가문 출신이라면 그 강요는 더 거셌다.

김창국과 함께 전주 지역 최초의 세례자인 김성희(金聖喜)는 유성안(柳聖安)의 부인으로 유씨 부인이라 불렸다. 그녀는 두 딸을 낳고 아들을 낳지 못한 여성이었다. 남편과 시어머니로부터 온갖 핍박을 견디고 있던 그녀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비를 베푼 예수 이야기를 듣고 개신교 신앙에 귀의한다. 전주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매티 테이트의 집에서 성서 공부를 하던 그녀는 어느 날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다.

> 놀라운 사건이었다. 믿음의 기적의 역사(役事)인 신앙고백이었다. 남편의 으름장은 결코 말만이 아니었다. 또 가면 죽인다. 그래도 출석했다. 피가 온몸에 어리여지는 무자비한 구타로 살갗이 여기저기 무너지는 모진 고문을 그는 이겨냈다. 끝까지 이겨냈다. 서양인들의 눈에 보이는 이름도 없는 이 우습게 보이는 두 딸을 끌어안고 기도했다.[25]

그녀는 성서 공부 모임에 다시 참여하면 죽여 버리겠다는 남편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모임에 참석하였고 그 결과 “자주 얻어맞았고 끊임없이 학대를 당

25) 이경, 『봉상교회 100년사론』, 249.

했다."[26]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선교사의 집을 계속 방문했다. 개신교 신앙을 통해 여성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자각한 그녀는 세례를 받은 후 스스로에게 김성희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이름이 없던 어린 두 딸들에게 '보배'라는 뜻의 보영(寶榮)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세례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녀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로써 "전주 시내에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여자가 하나님을 믿고 아들을 낳았다는 소문"이 퍼졌다.[27]

개신교 신앙이 더욱 확고해진 그녀는 제사를 위한 음식 장만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 나는 더 이상의 제사음식을 준비할 수 없다는 선언까지 하자 여필종부의 미덕을 손상하는 반역행위에 남편은 너무나 큰 충격과 분노에 부엌칼을 들고 만일 제사 준비를 하지 안 하면 죽이겠다는 것이 아닌가. 놀랍게도 그 부인은 침착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여유 있는 조용하고도 단호한 말로, "원한다면, 나를 죽이시오. 당신은 나를 죽일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나의 영혼을 죽이지는 못할 것이요. 나는 결코 제사 음식을 준비하지 않겠소."
>
> 번쩍이는 칼이 그의 목에서 몇 분인가 멈추었다. 두려움도 없고 얼굴은 환하게 빛나며 눈빛은 초롱초롱했다. 주를 위해 기꺼이 죽을 수 있다는 흔들림 없는 신앙에의 용기는 결국은 남편의 칼이 땅에 떨어지고 밖으로 뛰쳐나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 후 남편은 자상하고 구타도 없는 자애스러운 남편이 되었고 딸들을 기독교 학교에 보냈으며, 딸들은 기독교 교인에게 출가하는 것을 허락했다고 한다.[28]

남편은 "숯불로 달구어진 화저로 귀를 지지는 위협"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부엌칼을 들이대면서 제사 준비를 하라고 명령하였으나, 김성희는 흔들림 없이 자신의 결심을 고수하였다고 한다. 이후 김성희는 남편의 극심한 반대 가운데서도 아이들을 차례대로 유아 세례를 받게 했고, 전주신흥학교와 전주기전여학교에 입학시켰

---

26) 에너벨 메이저 니스벳(Anabel Lee Major Nisbet), 『호남선교초기역사(1892-1919)』, 한인수 역 (서울: 경건, 1995), 29-33.

27) 안영로, 『전라도가 고향이지요』, 37-42.

28) 이경, 『봉상교회 100년사론』, 250.

다. 이후 김성희의 아들 유춘경(柳春京)은 전주교회의 장로가 되었다고 기록된다.[29]

김성희의 이야기는 천주교의 성인전과 매우 유사한 구성을 보여준다. 박해의 주체가 정부에서 가족으로 바뀌었을 뿐, 배교를 강요당하지만 그것을 인내하는 용기를 가짐으로써 아들을 낳고 신앙도 지켰으며 자녀들에게 근대식 교육의 기회도 제공할 수 있었다는 점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봉상교회 100년사론』을 집필한 이경은 김성희 이야기가 "전주지역의 초대 신자들의 고난의 긴 산도를 지나는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 이야기중의 하나"라고 평했다.[30] 순교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죽음을 불사하고 개신교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김성희의 이야기는 현대 전북 지역의 개신교인들에게 교훈적인, 모범이 되는 이야기로 자리 잡고 있다. 김성희가 다녔던 전주교회뿐만 아니라 전북 지역의 다른 교회사 서술에서도 김성희의 이야기는 공통적으로 서술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알 수 있다. 김성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전북 지역 개신교의 공통적인 '선조'이자 '영웅'으로 인식됨으로써, 전북 개신교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는 구심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김성희가 개신교 신앙을 수용하고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는 기적이 일어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김성희 외에도 아들을 낳으려고 교회에 오는 여성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 모든 여성들이 아들을 낳지는 못했다. 성인전의 기준으로 본다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으니 기록으로 남겨질 이유가 없는 이야기들이다. 그러나 개신교사에 이런 여성들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득남의 여부가 이들의 삶에서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여성들은 아들을 낳지 못했더라도 아들을 낳는 여성의 임무를 넘어서는 삶의 의미를 개신교 신앙에서 찾아내 전도자로서의 생활을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결말을 맞는다. 이름이 없던 자신과 딸들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자식들에게 근대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 김성희의 이야기에서

29) 주명준, 『전북의 기독교 전래』, 89-90; 전주서문교회 100년사편찬위원회, 『전주서문교회 100년사』, 95.

30) 이경, 『봉상교회 100년사론』, 250.

도 이와 같은 강조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김성희의 이야기를 통해 당시 가부장적 가족 질서 속에서 주체성을 찾으려고는 여성들의 노력에 개신교 신앙이 어느 정도 기여하였으며, 제사를 둘러싼 갈등이 종교 간 갈등일 뿐만 아니라 고정된 성역할과 전통적인 가족 질서와도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갈등이었음을 알 수 있다.

3. 사회적 지위로 인한 고난

당시 조선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열등한 존재로 여겨졌고 유교적 문화에 따라 아들을 낳아 대를 잇고 남편을 섬기는 것이 여성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 인식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아들과 남편을 잃은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는 이야기는 사회적 지위로 인한 고난의 유형을 잘 보여준다. 매티 테이트가 만난 이씨 부인 이야기가 그것이다.

어느 날 그녀의 어머니는 딸을 불러 저명한 이씨 집안의 장남과 혼인이 성사되었다고 알려주었다. 그녀는 결혼하고 싶지 않았지만, 신랑 될 사람이 혼숫감으로 보낸 새 옷들과 예쁘고 선명한 색깔의 천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졌다. 그렇게 그녀는 남편과 결혼하고 아들과 딸을 낳았지만 곧 젊은 남편과 아들을 잃었다. 귀한 아들이 죽고 "쓸데없는" 딸이 살아있다는 미움과 슬픔으로 한탄만 하며 이씨 부인은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이에 한 중매쟁이가 그녀의 처지를 동정하여 매우 훌륭하고 부유한 남자를 소개해주겠다고 하였다. 이씨 부인은 강가에 자기의 옷 한 벌과 신던 신을 놓아두어 자기 모녀가 강물에 빠져 죽은 것으로 시부모가 오해하게 꾸민 다음, 딸을 데리고 재가(再嫁)했다. 그러나 새 남편은 중매쟁이가 말한 것과는 정반대로 술주정뱅이에 무능력한 사람이었다. 이씨 부인은 학대와 구타의 피해자가 되었고 고된 일을 도맡아해야만 했다. 그녀는 딸아이를 데리고 서울로 도망가 여승이 되겠다고 결심하였는데, 도중에 매티 테이트 선교사를 만나게 된다.

> 그 늙은 여인이 외국부인과 인사하라 하거늘 인사한 후에 자기 신세를 말하고 딸과 함께 의탁하기를 청하니 외국 부인이 가로되 저런 여인도 예수를 믿으면 근심이 없고 즐거움이 있을 터이니 어서 예수를 믿으라하고 도의 말씀을 익히 전한 후에 또 가로되 의지할 곳이 없다하니 가이없는(가엾은) 일이다. 그러나 모친은 아무데를 가서 아무일을 하든지 걱정이 없거니와 저 딸은 어리니 여기 두어 저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도 착실히 듣고 여공재질을 배워 성인한 후에(성년이 된 후에) 고생이 없게하라 하거늘 (중략) 문밖에 나와 어디를 갈고 걱정하더니 한 부인이 나오며 하는 말이 의지할 곳이 없다하니 이리 저리 갈라 말고 오늘날 내 일 하던 사람이 나갔으니 그 대신으로 일 하려느냐 묻거늘 그리하겠다 한즉 내 집으로 가자 하거늘 따라것 몸을 의탁하니 의식은 걱정이 없으나 신세를 생각하면 자연 마음이 슬퍼 눈물로 세월을 보내니 이때에 하나님을 아지 못하고 그 평안함을 깨닫지 못함이더라.[31]

매티 테이트의 도움으로 이씨 부인은 어린 딸을 여학교에 입학시키고 자신은 그녀의 조사가 되어 개신교 선교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이때까지도 이씨 부인은 개신교 신앙에 귀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후 개신교를 받아들이고 나서 "완연한 다시 난 사람"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32] 이후 그녀는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살던 친정집으로 가 어머니를 포함한 가족 몇 사람을 개신교인으로 전도하였다.

> 그 친정에 다시 가니 그 일가며 동네 여인들이 모여 서로 붙들고 죽었던 사람 살아왔다 하고 무한히 기뻐하거늘 속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감사하고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지냈던 것과 어떻게 여학당에 간 것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은 것과 어떻게 친정에 와서 이렇듯이 대면한 일을 처음부터 나중까지 낱낱이 다 말하니 듣는자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인도하시고 도와 주신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33]

---

31) 매티 테이트(Mattie Samuel Tate), 「인모귀도」, 『호남교회춘추』 5월 창간호 (1994[1910]), 84.

32) 매티 테이트, 「인모귀도」, 85.

33) 매티 테이트, 「인모귀도」, 88-89.

이씨 부인은 약방에서 환자를 정성껏 간호하다 병을 얻어 죽고, 그녀의 딸은 훗날 전주기전여학교에서 일한 최초의 한인 교사들 중 한 사람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34]

이 이야기의 제목인 「인모귀도」는 한자로 '引母歸道'이고 영어로 'Leading the mother in the right Way'로, 이씨 부인이 어머니를 바른 길, 즉 '개신교 복음'으로 이끌었다는 내용을 요약해서 보여준다. 매티 테이트가 이씨 부인의 신앙 수기를 대필한 것인데, 『호남교회춘추』의 편집자는 이 이야기를 연극으로 만들어 개신교 전도에 사용할 것을 권할 목적으로 이를 번역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초기 개신교 신자들의 이야기가 현재 어떻게 반복되고 재현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이씨 부인은 아들과 남편을 한꺼번에 잃으면서 삶의 안정적인 토대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매티 테이트 선교사를 만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인물로 그려진다. 그녀가 남편으로부터 겪는 폭력과 불안정한 삶은 과부라는 결핍된 지위로부터 기인하였는데, 선교사의 조사가 됨으로써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개신교 신앙을 전적으로 수용하면서 마음의 평안도 얻게 되었다고 서술된다. 이씨 부인이 보여주는 반전은 현대 개신교인들에게 신앙의 힘을 증명해 주는 것으로 수용되고, 그녀의 전도 활동은 신앙의 모범을 제공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서수진이라는 여성의 이야기도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에서 벗어나 근대적 교육을 받고 전문직업인으로 거듭나는 '신여성'의 사례를 보여준다. 서수진은 얼굴에 천연두의 흔적이 있는 키 큰 소녀였다. 그녀의 아버지는 딸을 어느 젊은 목수와 결혼시키기로 결정했다. 이 목수는 서씨 집에 방 한 칸을 지어줌으로써 그녀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다. 서수진은 목수의 소유가 되었고, 학교를 졸업하면 즉시 그와 결혼해야만 했다. 서수진은 정혼한 남자에게 편지를 써서 새 신발, 노트, 연필을 사달라고 요구하면서 그렇게 해주면 순종적인 아내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남자에게 편지를 한다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 일이었으나,

34) 니스벳, 『호남선교초기역사』, 159-65.

그녀는 당당하게 자신의 결혼에 대한 요구 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젊은 목수는 그녀와의 결혼을 회의(懷疑)하게 되었고, 때마침 한 선교사가 방 한 칸의 비용을 대신 지불해주어 서수진은 결혼의 속박으로부터 풀려날 수 있었다. 그 후 그녀는 서울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의 간호원 양성과정에 들어가 정규 간호원이 되었다.[35]

일 년에 한 달 동안 농한기에 맞춰 진행된 '달성경학교'는 전근대적인 질서 속에서 자신의 정당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며 살았던 여성들에게 주체성을 확립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 활동을 통해 수많은 여성 지도자들이 전도자의 사명을 갖고 주체적으로 개신교 선교에 참여하였다. 여성들은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정당한 위치를 인식할 수 있었고, 남편과 아내가 진정한 동반자 관계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36] 당시 "성경학교를 다녀오면 모두 다 신식 여자"라는 인식이 생길 정도였다고 한다. 또한 달성경학교를 통해 사회를 보는 눈이 달라져 민족에 대한 새로운 의식을 일깨울 수 있었고, 회의(會議)하는 방법을 배워 민주 시민으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도 있었다고 평가된다.[37] 현대 개신교인들은 서수진의 이야기를 읽음으로써 개신교회를 통해 여성들에게 제공된 교육의 기회가 남성과 동등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지 못했던 여성들이 주체적인 존재로 거듭나게 도와주었다고 받아들일 것이다.

한편, 여성 외에 천민들이 개신교를 통해 신분의 장벽을 넘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동등함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김제 금산교회 조덕삼과 이자익의 이야기는 양반과 천민의 구별이 개신교회 안에서 파격적으로 혁파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테이트 선교사가 김제 지역에 맨 먼저 세운 교회는 금산교회로, 두정리(豆頂里)교회 혹은 팟정이교회라고도 불렸다. 테이트 선교사는 주말이면 모악산 밑에 있는 두정리 마을에 말을 맡겨 놓고 멧돼지 사냥을 즐겼는데, 두정리 마을을 방문했을

35) 니스벳, 『호남선교초기역사』, 196-98.

36) 니스벳, 『호남선교초기역사』, 204-05.

37) 이수진, 『호남기독교 100년사』, 72; 개복교회 역사편찬위원회, 『개복교회 110년사』, 213.

때 말을 맡기는 마방이 바로 조덕삼의 마방이었다. 조덕삼의 5대조 할아버지는 평양에 거주하면서 만주과 북경을 드나들며 사업을 해 큰돈을 벌었으며, 그의 아버지는 금산에 금이 많이 난다는 소문을 듣고 그곳에 자리 잡아 대를 이어 살아왔다. 조덕삼은 많은 유산을 물려받아 김제 지방뿐만 아니라 전주에 이르기까지 거부로 소문난 인물이었다. 반면, 이자익은 경상도 남해 출신으로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살 길이 막막해 금산으로 흘러들어와 거부인 조덕삼의 마부가 되었다. 이자익은 주인의 아들들이 선생으로부터 글을 배울 때 밖에서 그 소리를 듣고 천자문을 익혔다. 이것이 그가 받은 유년기 교육의 전부였다.

테이트 선교사의 전도로 조덕삼과 이자익은 조덕삼의 사랑채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하였고 1905년 10월 11일 조덕삼, 이자익, 박희서 세 사람이 최초로 세례를 받으면서 두정리교회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38] 교회가 자리를 잡자 장로를 선출했는데, 천민인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되었다. 당시 한국 교회 내에서 천민·양민 구별이 극심한 때였지만[39] 두정리교회에서는 그러한 사고방식이 완전히 깨진 것이다. 당시 두정리교회가 "이웃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부도덕한 교회"라는 평을 들었던 것도 아마 이러한 연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된다.[40] 그러나 양반이자 지주였던 조덕삼은 투표 결과에 불만을 품지 않고 깍듯이 그를 예우했다.

> 그 발표 자리에서 발언권을 얻은 조덕삼 영수(領袖)는 모든 교인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있었다.
>
> "여러 교우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나이가 많아서 교회에 봉사한다는 것은

38) 이수진, 『금산교회이야기: 한국기독교회사 100년을 증거하는 'ㄱ'자 교회』 (서울: 금산교회문화재보존위원회, 1999), 35-40.

39) 교회 내 양반과 천민의 갈등은 당시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서울 지역에서 백정들의 집단 개종이 일어나면서, 곤당골교회(승동교회)의 양반출신 교인들이 백정출신 교인과 함께 예배드릴 수 없다 하여 1895년 홍문수골교회를 세운 것과, 연못골교회(연동교회)에서 천민출신 장로가 선출된 데 반발한 양반 계층이 1910년 따로 묘동교회를 세운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류대영, 『한국 근현대사와 기독교』 (서울: 푸른역사, 2009), 218; 옥성득, 『한국 기독교 형성사: 한국 종교와 개신교의 만남 1876-1910』 (서울: 새물결플러스, 2020), 507-08.

40) 이경, 『봉상교회 100년사론』, 317-18.

어려운 일인데 이자익 영수를 장로로 선출해 준 일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러한 소식은 모악산에서 불어오는 바람결에 김제읍은 말할 것도 없고 선교부가 있는 전주까지 알리어지기 시작하였다.[41]

이후 조덕삼은 이자익 장로를 끝까지 지지하며 이자익이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할 때에도 모든 학자금과 생활비를 지원하였다. 이자익이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자 조덕삼 장로는 선뜻 자신의 하인이었던 이자익을 목사로 청빙하였다.[42] 이후 총회장을 세 번이나 역임한 이자익은 자신의 신분이 마부 출신이었다는 것을 서슴없이 밝혔다.[43]

양반과 천민의 신분 구별이 철저했던 당시 이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조덕삼 장로의 신앙의 힘"이었다고 평가된다.[44] 또한 이자익이 자신의 출신을 한계로 인식하지 않고 목사 안수까지 받았던 것도 신앙을 통해 자의식을 일깨울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자익과 조덕삼의 이야기는 개신교 신앙을 통해 양반과 천민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뛰어넘어 민주적이고 평등한 공동체를 확립하기 위한 초기 개신교의 노력을 현대 사회에서도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제시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사회 개혁 실패로 인한 고난

동학농민운동의 실패로 인한 고난을 개신교 신앙의 힘으로 극복한 이야기도 강조되어 기억되고 있다. 농민의 지위 개선이나 당시 고부(古阜) 군수인 조병갑의 폭정에 대한 반발 등 사회 개혁에 대한 욕구에서 시작된 동학농민운동은 외세의 간섭으로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에 호남지방의 대다수 농민들은 허탈감과

41) 이수진, 『금산교회이야기』, 41-42.
42) 이수진, 『호남기독교 100년사』, 217-20; 주명준, 『전북의 기독교 전래』, 222-26.
43) 안영로, 『전라도가 고향이지요』, 84-89; 이수진, 『호남기독교 100년사』, 226; 이수진, 『금산교회이야기』, 12-69.
44) 이수진, 『금산교회이야기』, 15.

좌절감에 빠져있었다.[45]

익산 동련교회의 초석이 된 백낙규도 동학농민운동의 실패로 큰 절망을 느꼈다고 한다. 그는 동학농민운동의 적극적인 참가자였다. 백낙규는 1876년 전라남도 승주군 송광사 옆 뱃골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너무 가난하여 절에 들어가서 승려가 되었으나 얼마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왔다고 한다. "탐관오리들의 수탈과 착취 속에서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을 보며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던 그는 1894년 시작된 동학농민혁명을 "하늘이 준 기회"로 여겼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에 그는 동학농민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소접주까지 하였으나,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한 후 관군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황등에 와서 장사를 하다가 오긍선(吳兢善) 조사를 만나 동련리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는 것이 그에 대한 기록이다.[46]

동학농민운동의 실패로 큰 절망을 느낀 그는 당시 "황등장에 술 잘 먹고 노름 잘 하는 뚝심 센 포목장수"로 묘사되었다. "텃세와 거세기로 유명한 이곳의 주먹잡이들도 손을 들고 고개를 젓던 사람"이 바로 백낙규였다는 것이다.[47] 그러나 그는 곧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기독교에 있음을 깨달았다."고 전해진다. 실현되지 못한 "동학군의 이상과 그것의 좌절에서 쌓인 울분"으로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고 있던 중 만난 개신교 신앙은 "케케묵은 양반 · 상놈, 남존여비의 낡은 봉건적 유습과 위 아래로 썩어 문드러진 이 나라를 구하고 살리는" 길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그에게 그것은 "옛 사람을 바꾸어 새 사람이 되는 길"이었다.[48]

---

45) 이수진, 『호남선교 100년과 그 사역자들』, 68.

46) 동련교회는 1901년 옥구군 서수면 장평리에서 시작되어 1902년 오늘날의 황등 동련리로 옮기고, 1905년 정식으로 동련교회로 성립되었다. 동련교회역사편찬위원회, 『예수꾼의 뚝심』, 30-32; 주명준, 『전북의 기독교 전래』, 199-120; 정옥균, 「전북지역 개신교 초기 교회의 형성과 그 전개과정에 대한 연구(1892-1945년)」 (박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1999), 64.

47) 동련교회역사편찬위원회, 『예수꾼의 뚝심』, 30.

48) 동련교회역사편찬위원회, 『예수꾼의 뚝심』, 32; 정옥균, 「전북지역 개신교 초기 교회의 형성」, 64.

> 백낙규는 그가 고민하던 문제의 해결을 찾았다. 그 즉시 그는 술과 노름을 끊고 성서에 적혀 있는 대로 새 생활을 실천하기 시작하였다. 헐벗은 자들에겐 거저로 옷감을 나누어 주고 끼니가 없는 빈궁한 살림에는 당장 먹을 쌀이라도 슬며시 내다 주었다. 6, 7월부터 시작된 여름 더위와 이때를 맞추어 도는 전염병에 걸려 죽어 길거리에 나뒹구는 시체들을 손수 들어다 염을 하고 장례를 치루어 주는 등 백낙규는 그야말로 사랑의 삶을 실천하였다. (중략) 그것은 그의 부지런함에서만 가능하였다. 그래서 동리 아낙네들은 백낙규의 옷감 실은 말의 방울소리에 잠을 깨어 아침밥 군불을 지폈다 했듯이 (중략) 장터 사람들은 장이 서서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이면 "예수를 믿으려면 저기 동련의 백낙규처럼 믿으라"는 소문이 날 정도였다.[49]

그는 깨달음에 따라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복음을 믿고 개과천선"했다고 표현되었다.

백낙규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동학농민운동에서 경험했던 좌절과 허무를 극복할 희망을 개신교에서 찾았다고 여겨진다. 청ㆍ일전쟁으로 인해 전주의 경우 삼분의 일 가량이 파괴되었고, 동학농민운동의 실패와 뒤이은 일제의 침략을 맞아 절망과 허무를 느끼는 상황에서 선교사들에 의해 개신교 선교가 재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에 귀의하기 시작하였다.[50] 나라를 빼앗긴 데서 오는 울분과 좌절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개신교회가 안식처가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 장로회 해외선교부 총무인 스피어(R. E. Speer)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 동학도들은 기독교를 박멸하거나 서양선교사들을 추방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교에 강력한 자극을 주고 복음 전파의 새 길을 열어 준 셈이다. 우선, 동학이 봉기했던 바로 그 불만과 불안의 상황이 기독교 메시지 전파에는 비옥한 토양이 되었으며, 동학봉기가 실패했을 때 그것은 수많은 민중들로 하여금 더 절실하게 기독교에 귀를 기울이도록 만들었다.[51]

---

49) 동련교회역사편찬위원회, 『예수꾼의 뚝심』, 32.

50) 이수진, 『호남선교 100년과 그 사역자들』, 56.

51)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186.

더 나아가, 『봉상교회 100년사론』을 집필한 이경은 "역사적 갈등과 억압적이며 착취적 현실 그리고 식민지 정복의 압제 속에서 함께 민중해방을 위해서" 동학과 개신교가 만났다고 평했다.[52] 백낙규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동학동학농민운동의 실패로 좌절된 사회 개혁의 열망이 개신교를 통한 개인 및 사회 개혁으로 극복될 수 있다고 여겼음을 추론할 수 있다.

5. 부당한 현실로 인한 고난

정의롭지 못한 사회 현실로 인한 고난도 전북 지역 초기 개신교인들이 마주한 상황이었다. 김제 대창리(大創俚)교회의 설립자 최학삼(崔鶴三)이 이완용에 맞서 농민들을 지킨 이야기는 부당한 현실에 대한 영웅적인 저항을 보여준다. 『봉상교회 100년사론』에서 그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열정적인 인물로 묘사된다.

> 그는 사건을 달고 다니는 불굴의 용사 그대로였다. 양반가문의 출신으로 지성과 인격과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몸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지도자이기에 그를 따르는 사람이 많았다. 6척 거구의 몸에다 유창한 언어의 구사력이 그 뒤를 따르고 성격은 대쪽같아서 불의를 보면 분노가 일어나는 격정의 사나이이기도 했다.[53]

오직 벼농사로 생계를 유지하던 김제 대창리 마을에는 당시 이완용이 넓은 농토를 가지고 있었다. 저수지 밑에 이완용의 논이 있어 항상 그의 논에 물이 들어간 후에야 다른 농민들이 물을 대어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날이 가물 때 가난한 소작인들은 물이 없어 모내기를 하지 못했다. 어느 날 최학삼 장로는 젊은 농민들 몇 명을 이끌고 가서 저수지 밑에 이완용의 논으로 들어가는 수로를 대창리 넓은 논 쪽으로 돌려놓았다. 이에 이완용이 고발을 하였지만, 최학삼은 "조금도 두려움 없이 많은 백성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가난한 자를 보살펴 주는 하나님을 믿고, 재판에 임했고 승리는 정의로운, 사랑의 열정에서 나

52) 이경, 『봉상교회 100년사론』, 236-37.

53) 이경, 『봉상교회 100년사론』, 274.

온 의분의 최장로의 손을 하나님은 높이 들어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다.[54] 신앙의 힘으로 불의에 저항할 힘을 얻은 한 '영웅'적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역사적 맥락과 맞물려 현대 개신교인들에게 자긍심과 통쾌함을 주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선교사들과 한국인 지도자들 사이의 불평등한 대우에 대해 문제제기한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 바로 최중진 목사의 자유교회 선언 사건이다.

최중진 목사도 동학농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인물이다. 운동이 실패로 끝나자 최중진은 테이트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그의 조사가 되었다. 조사 신분인 그는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선교 구역을 맡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던 고부, 정읍, 태인, 매계 지방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다. 그는 동학농민운동이 끝난 6년 후인 1900년에 정읍 삼보면 매계리에 매계교회(현 신광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는 최고로 발전했을 때 3천여 명에 이르는 신도를 보유한, 호남지방에서는 가장 큰 교회로 발전하였다고 전해진다.[55] 그는 1906년에 선교부로부터 인정을 받아 최초의 장로가 되었고, 1908년 평양 장로회신학교 2회 졸업생으로 1909년 9월 6일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56]

당시 한국인 목사들은 같은 목사이면서도 선교사만큼 대접을 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선교사와 한국인 목사 사이에 종종 의견 충돌이 일어났다. 최중진 목사는 이러한 차별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였다. 선교사들이 머물렀던 군산과 전주, 그리고 선교사들의 선교 구역은 재정적인 지원이 잘 되어 전도의 성과가 두드

54) 이경, 『봉상교회 100년사론』, 275.

55) 이수진, 『호남선교 100년과 그 사역자들』, 57, 69. 이에 대해 주명준은 당시 매계교회 교인수가 3천 명에 이르렀다는 것은 다소 과장된 수치라고 지적한다. 오늘날 인구 65만의 전주에서 아무리 큰 교회라도 3천 명 교인을 포용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하물며 100년 전에 인구도 별로 없던 당시 매계교회에서 3천여 명의 교인이 재적하였다는 말은 믿기 어렵다고 주명준은 주장하였다. 주명준, 『전북의 기독교 전래』, 237. 『전주서문교회 100년사』에는 최중진이 당회권리를 행사했던 교회들의 신자들을 모두 합한 수가 3천여 명에 달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전주서문교회 100년사편찬위원회, 『전주서문교회 100년사』, 186.

56) 이수진, 『호남선교 100년과 그 사역자들』, 61, 81.

러졌으나, 최중진 목사가 독립적으로 맡고 있는 구역은 재정적인 면에서 약세였고 교육 및 의료 시설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다. 그가 담당한 매계교회에 보통학교 과정이 있기는 했으나, 전주신흥학교나 전주기전여학교에 비할 바가 못 되었다.[57] 또한, 최중진 목사는 선교사와 한국인 목사의 생활비에서 큰 차이가 나는 점도 불공평한 처우라고 여겼다. 그는 상대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하는 선교사들에 비해 어려운 상황에서 조사나 목사로 활동하는 한국인의 생활이 너무 비참하다는 생각을 했다.[58]

한국인 조사나 목사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와 견제도 존재했다. 선교사 레이놀즈는 "목사 훈련을 위한 계획을 얼마 동안 한국인에게 알리지 말자. 또 목회자를 도우려면 외국의 선교비로 설교자나 전도자를 고용치 말자. 선교 사업의 초창기에는 목회자를 훈련시키려고 미국에 보내지 말자."는 등의 교육 방침을 제시하였다. 한국인 개신교회 지도자들에게 선교사들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지 않았고, 그들이 미국에 가서 훈련을 받고 온 후 선교사들에게 저항할 것을 두려워한 것으로 추측된다.[59]

이러한 상황에서 최중진은 목사가 된 후 1910년 1월 전주에서 전라대리회(全羅代理會)[60]가 열릴 때 다섯 가지 요구안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처음 믿는 자들에게

57) 이수진, 『호남선교 100년과 그 사역자들』, 82.

58) 이수진, 『호남선교 100년과 그 사역자들』, 66.

59) 이수진, 『호남선교 100년과 그 사역자들』, 80; 주명준, 『전북의 기독교 전래』, 156-57. 덧붙여 이수진은 평양에 신학교가 생기기 전인 1890년 초가을 서울 새문안 정동의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 원두우) 집에서 신학반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한국인에게 목사 교육을 하기 위한 기초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들어, 미국 북장로회(PCUSA, Presbyterian Church USA) 소속인 언더우드나 모펫(S. Moffett, 마포삼열) 같은 선교사가 미국 남장로회 선교사들에 비해 훨씬 앞선 사람들이었다고 평가한다.

60) 1907년 평양 장로회신학과 제1회 졸업생 7인이 배출되면서 자체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하여 1912년 총회가 창설되기 전까지 사실상 독노회(獨老會)가 총회적 기능을 수행하였다. 선교사 33명, 찬성 회원 9명, 한국 교회 대표 36명이 참여하였으며, 7인의 한국인 최초 장로교 목사를 안수하였고 '대한장로회 신경'(信經)을 채택하였다. 이는 총회 창설의 바탕이 된다. 1907년 독노회가 조직된 후 교세가 확장되어 독노회 산하에 7 대리회(代理會)를 조직하여 각 지방을 관할하였다. 독노회로서는 전국을 관장하기 힘들었고 회의를 자주 소집하기도 힘들었기 때문에 경기, 충청, 평북, 평남, 경상,

세례를 주는 기준을 완화하자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음주, 흡연, 축첩을 하더라도 세례를 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둘째는 최중진 자신에게 보다 넓은 선교 구역을 달라는 요청이었고, 셋째는 전주와 군산에서처럼 자신의 지역에도 중등학교를 세워줄 것을 요구하였다. 넷째는 교회마다 구제부 위원을 두 명씩 두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자는 것이었고, 마지막 다섯째는 집을 한 채 사달라는 내용이었다.[61]

결과적으로 선교사들은 "배은 · 배약 · 분쟁 · 몰지각 · 불복"이라는 표현을 쓰며 그의 제안을 모두 거부하였다. 이에 그는 전라대리회장인 불(William Ford Bull, 부위렴) 선교사 앞으로 편지를 보내 자신의 소속이 더 이상 '대한예수교 장로회 독노회 전라대리회'가 아니라 '대한예수교 자유교'라고 독립을 선언하였다. 불 선교사는 최중진 목사에 대한 제명안을 제출하였고, 대다수의 한국인 목사가 선교사의 입장에 서서 그의 제명에 동의하였다.[62] 그 결과 최중진은 한국교회사의 첫 번째 제명 목사가 되었고, 그가 관장하고 있던 매계교회를 비롯하여 정읍제일교회, 천원교회, 해보교회, 고부교회 등 여러 교회가 자유교회로 넘어갔다. 그는 얼마 동안 매계교회를 담당하였지만 곧 재산 싸움에서 밀려났고, 이후 매계리를 떠나 정읍에서 형평운동을 하면서 일생을 보냈다. 매계교회는 폐교되었다가, 만주 지방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하다 검거돼 투옥된 후 1924년 매계리로 돌어온 박봉래 장로에 의해 재건되었다.[63]

최중진 목사의 자유교회 사건에 대해, 당시 제도권 교회는 이를 '이단'으로 규정

함경, 그리고 전라대리회를 설치하여 노회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하도록 하였다. 이후 1912년 평양 장로회신학교 강당에서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가 결성되었다. 이는 1887년 9월 한국 장로회 최초의 교회인 새문안교회의 설립 후 25년 만의 일이다. 이수진, 『호남선교 100년과 그 사역자들』, 23; 〈독노회〉, 《한국컴퓨터선교회》 2007년 11월 22일. http://kcm.kr/dic_view.php?nid=39420 (2020. 9. 28. 접속)

61) 안영로, 『전라도가 고향이지요』, 92-93; 주명준, 『전북의 기독교 전래』, 248-51.

62) 이수진, 『호남선교 100년과 그 사역자들』, 65; 전주서문교회 100년사편찬위원회, 『전주서문교회 100년사』, 184-85;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편, 『한국 기독교의 역사 II』 (서울: 기독교문사, 2012), 194-95.

63) 이수진, 『호남선교 100년과 그 사역자들』, 31, 85, 97-98.

하였다.[64]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선교사들도 최중진 목사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었다. 니스벳 부인(Anabel Lee Major Nisbet)은 그가 "무한한 야심과 자신을 높이려는 욕구를 가진 사람"이어서 "루시퍼처럼 넘어지고 말았다"고 평가하였다. 술을 마시고 첩을 두는 남자들을 교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교회의 도덕적 기준을 하락시키는 행위로 신도라는 이름을 갖기는 원하나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려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호소하고자 하는 변칙이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그의 행동이 군산과 광주에서 많은 교회들을 분열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65] 자유교회 사건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도 그것이 극단적인 민족주의나 반교회적·정치적 사건으로 초기 교회 성장에 걸림돌이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66]

그러나 최근 들어, 최중진 목사의 자유교회 선언이 표방한 교권적 정치에 대한 저항을 교회사적으로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인 연구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67] 먼저 이수진은 선교사들의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를 비판적으로 지적한다. 그는 1901년 선교사 모펫(S. Moffett, 마포삼열)에 의해 평양장로회신학교가 세워지고 1938년 신사참배로 인해 폐교될 때까지 선교사의 주도하에 학교가 운영되었기 때문에 "한국적인 것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고까지 평가하였다.[68] 이런 배경에서 최중진의 자유교회 선언 사건은 주체적인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중진 개인에 대한 긍정적인 재평가도 이루어지고 있다. 한번은 최중진을 포함해 최광진, 최대진 삼형제가 일본군에게 쫓겨 매형이 사는 순창에 숨어들었던 적이 있다. 그때 일본군인들이 그 집을 습격해 "긴 칼을 빼어들고 최중진 뒷목에 대고 내리쳤는데 이상하게도 목에 상처만 나고 그 자리에서 살 수 있었다"고 전해진다.[69] 이후부터 최중진은 "흉터가 있는 목을 보여주며 기적같이 생명을 구하게

64)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편, 『한국 기독교의 역사 II』, 194.

65) 니스벳, 『호남선교초기역사』, 90.

66) 육기수, 「최중진 연구: 호남지방 선교 활동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2002), 2-3.

67)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편, 『한국 기독교의 역사 II』, 194-98.

68) 이수진, 『호남선교 100년과 그 사역자들』, 22.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고 한다.[70] 또한, 이들 삼형제는 힘도 세고 키도 커서 다른 사람보다 앞장서서 도망 다니기도 하였고, 급할 때는 남의 담장도 뛰어넘어 다녔다고 기억된다. 특히 최중진은 고부, 정읍, 김제, 삼례까지 원정을 다니면서 씨름대회의 우승을 휩쓸어서, 그의 명성은 이미 전라도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한다. 개신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최중진이 지나가면 그의 위풍을 구경하기 위해 길거리에 모여들었고, 유생들도 그를 개신교 신자라고 무시하지 않고 존경하였다고 전해진다. 전도를 다니는 그의 "얼굴에는 광채가 있었고, 가물거리는 초롱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이 그렇게 돋보일 수가 없었다."는 진술이 나올 정도였다.[71] 최중진의 영웅적인 면모가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육기수는 동학에 참여했던 최중진의 경험이 자유교회 사건과 긴밀히 연결된다고 지적한다. 반외세 · 반봉건을 주장하는 동학의 이념이 민족적 정체성을 고취시켰고, 이것이 "선교사의 우월의식"에 문제의식을 갖게 했을 것이라는 평가이다.[72] 최중진 목사의 자주교회 선언 사건은 "호남인은 호남인 스스로 하나님의 선교에 임한다"는 정신을 보여주었고, 이것이 "호남의 기독교가 백 년의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힘이라는 평가도 있다.[73] 그것은 "강한 자아의식과 민족 사랑"에서 비롯된 것으로,[74] 이후 1918년 김장호의 '조선기독교회', 1923년 이만집의 '자치교회', 1928년 박승명의 '마산예수교회' 등으로 차례로 이어지는 자치 · 독립교회를 선언의 시발점이었다는 언급도 있다.[75] 비록 최중진이 자신의 명성을 높이고 더 많은 권한을 가지기 위해 자유교회를 선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가 신학교를 졸업

69) 이수진, 『호남선교 100년과 그 사역자들』, 59.

70) 안영로, 『전라도가 고향이지요』, 78.

71) 이수진, 『호남선교 100년과 그 사역자들』, 70; 안영로, 『전라도가 고향이지요』, 78-79. "기독교인들은 물론 비기독교인들까지 최목사를 따르고 존경했다. 최목사가 말을 타고 순회할 때면 고을 사람 모두 마치 원님 대하듯 고개를 숙이고 예를 표했다." 신광교회(구 매계교회)의 조영기 장로 증언. 주명준, 『전북의 기독교 전래』, 237.

72) 육기수, 「최중진 연구」, 19.

73) 이수진, 『호남선교 100년과 그 사역자들』, 142.

74) 전주서문교회 100년사편찬위원회, 『전주서문교회 100년사』, 184.

75)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편, 『한국 기독교의 역사 II』, 195-98.

하고 당당한 목사가 된 후에도 자신의 일을 독립적으로 소신껏 하지 못한 데서 오는 좌절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현재의 평가가 수렴되고 있다. 그의 시도가 외세에 대한 의존 없이 호남인 스스로 '하나님의 선교'에 임하고자 했던 자주적 목소리였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으로 오늘날 최중진의 이야기는 새롭게 기억되고 있다. 『봉상교회 100년사론』에 실려 있는 최중진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은 다음과 같이 마무리된다.

>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고 맹렬한 운동이 불타오르는 정읍 지역에 서학의 맥락에서의 교회가 그 뿌리를 내린다는 것이 참으로 힘든 여건 속에서도 최목사는 불굴의 용기로 성서를 통해서 민족구원과 해방(출애굽)을 부르짖으며 가난한 농민 등을 불러모아 교회를 이끌어갔던 최중진 목사, 죄 없는 선교사들이 있다면 그에게 돌을 던지라![76]

지금까지 살펴본, 전북 지역 초기 개신교 신자들의 이야기에 담긴 고난의 유형과 극복 양상은 다음의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고난	극복의 노력	결과	인물
개인	질병	서양 의술 및 신앙의 수용	치료	김창국, 김응규
	배교 강요	인내, 용기	득남, 자녀들의 근대적 교육 수혜	김성희
사회	사회적 지위	(여성) 신앙의 수용과 훈련	안정된 삶과 평안, 주체성 확립	이씨 부인, 서수진
		(천민) 신앙의 수용과 신학 교육	평등 공동체 확립	조덕삼과 이자익
	사회 개혁 실패	신앙 수용과 자기 개혁	개신교 통한 사회 개혁 추구	백낙규
	부당한 현실	(이완용과의 갈등) 재판	승리	최학삼
		(선교사와의 갈등) 요구안 제시	패배, 재평가	최중진

<표 1> 전북 지역 초기 개신교 신자들의 이야기에 담긴 고난의 유형과 극복 양상

76) 이경, 『봉상교회 100년사론』, 291.

Ⅳ. 결론

성인전을 읽는 독자들은 주인공의 행적에 감동을 받고 그것을 자기 삶의 모범으로 삼고자 노력한다. 전북 지역 초기 개신교 신자들의 '처음' 이야기도 독자들에게 같은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그런 점에서 개신교사 기록들은 사료로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따를 만한 성인전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천주교의 성인전이 기적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전북 개신교인들의 처음 이야기는 주인공들의 행적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여기에서 다룬 이야기들이 그 자체로 정확한 사실의 기록이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본 논문의 논지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다. 전북의 초기 개신교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현재 개신교인들에게 '역사'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더 나아가 삶과 신앙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모범적인 이야기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 본 논문은 초점을 맞춘다. 그 이야기들 속에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해내고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성인전에 대한 학문적 접근 방식과도 상통하는 것이다.

전북 지역 초기 개신교 신자들이 개신교의 수용을 통해 병을 고치고 자녀들에게 근대적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개인적인 고난을 극복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여성과 천민이라는 낮은 사회적 지위로 인한 고난이 개신교 신앙을 통한 훈련과 교육으로 극복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동학농민운동의 실패로 인한 허탈감과 좌절감에 빠져있을 때, 개신교 신앙 속에서 고난을 극복할 힘과 사회 개혁의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는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다. 부당한 현실에 적극적인 대응이 당시엔 부정적으로 평가되었을지라도 현재에는 긍정적으로 재평가되는 이야기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현재 전북의 개신교인들에게 "의미 있는 모든 인간 행위의 범례"를 제시한다.[77]

특정한 대상의 시작을 반복해서 말하고 기억하는 것은 그것이 현재에도 여전히

77) 미르치아 엘리아데(Mircea Eliade), 『종교형태론』, 이은봉 역 (파주: 한길사, 1996), 520.

의미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뜻하며, 지금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다짐을 담고 있기도 하다. 과거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과거'에 해당하는 '처음'의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말하고 기억한다는 것은 현재의 것을 최초의 것과 연결하는 것이다. 그렇게 최초의 선교사와 목사, 개신교인들의 이야기는 현재 개신교인들의 이야기와 연결된다. 동련교회 역사서의 머리말에 적혀 있는 다음의 구절이 과거와 현재의 이러한 연결을 잘 보여준다.

> "동쪽 연꽃 피는 마을"에 교회가 세워진 지 90여 년, 이 세월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캐내어 이를 땀흘리며 기록한 "예수꾼의 뚝심"은 (중략) 90년 교회 역사 속에 숨겨져 있었던 사실들을 캐내어 어려운 시절 예수와 만나 맺힌 한을 풀고 정열을 불태웠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지금 우리들의 부족하고, 안일하고 타성에 빠져가는 신앙과 교회의 갈 길을 찾고자 함입니다.78)

전북 지역 개신교 신자들의 처음 이야기에서 주인공들의 주체적인 의지와 행위가 부각되는 것처럼, 그것을 읽는 독자들의 적극적인 행위와 반응도 중요하다. 다시 말해, 처음 이야기의 주인공들과 그것을 읽는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그들의 이야기를 중요한 의미를 가진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반복적으로 기억함으로써 그것을 자신의 이야기와 연결시키는 적극적인 행위가 이러한 이야기 읽기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종교적·문화적 공동체가 구축되고 강화된다. 이런 점에서 전북 지역 초기 개신교 신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당시 개신교 공동체가 형성되는 데에도 기여했지만 현재까지 신앙 공동체가 유지되고 사회와 상호작용하면서 지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게 되는 데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종교 공동체가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도 맞지만, 이야기가 종교 공동체를 구축하고 확고하게 자리잡는 데에도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초기 개신교인들의 이야기 읽기는 과거 신앙의 영웅들을 본받고자 하는 개인적 훈련이자, 그 속에 담겨 있는 종교적 가치와 의미를 현재에도 계속해서 실현하고

78) 동련교회역사편찬위원회, 『예수꾼의 뚝심』, 5.

자 하는 사회적 실천이며, 동시에 종교 공동체 및 지역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전망 모색이라고 할 수 있겠다.

주제어: 성인전, 전라북도, 초기 개신교, 이야기, 김창국, 조덕삼, 이자익, 백낙규, 최중진

원고접수일: 2020년 11월 25일
심사완료일: 2020년 12월 23일
게재확정일: 2020년 12월 28일

참고문헌

개복교회 역사편찬위원회.『개복교회 110년사: 1894-2004』. 서울: 개복교회, 2004.

김윤성.「초기 한국 가톨릭의 성인 전기: 서지 및 구조적 특성을 중심으로」.『교회사연구』 15 (2000): 51-81.

_____.「조선후기 천주교 성인공경에 나타난 몸의 영성」.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03.

김정경.「조선 후기 천주교 성인전 연구」.『한국학』 40(1) (2017): 223-252.

_____.「조선후기 천주교 성인전과 순교일기의 비교 연구 - <성년광익>과 <기해일기>를 중심으로」.『한국고전연구』 39 (2017): 329-365.

김정진.『가톨릭 성인전』 上. 서울: 가톨릭, 2006.

니스벳, 에너벨 메이저(Nisbet, Anabel Lee Major).『호남선교초기역사(1892-1919)』. 한인수 역. 서울: 경건, 1995.

동련교회역사편찬위원회.『예수꾼의 뚝심: 동련교회구십년사』. 익산: 동련교회, 1992.

류대영.『한국 근현대사와 기독교』. 서울: 푸른역사, 2009.

민경배.『한국기독교회사』.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브루너, 제롬(Bruner, Jerome S.).『이야기 만들기: 법, 문학, 인간의 삶을 말하다』. 강현석 · 김경수 역. 파주: 교육과학사, 2010.

안영로.『전라도가 고향이지요: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의 눈물과 땀의 발자취』. 서울: 쿰란출판사, 1998.

엘리아데, 미르치아(Eliade, Mircea).『종교형태론』. 파주: 한길사, 1996.

옥성득.『한국 기독교 형성사: 한국 종교와 개신교의 만남 1876-1910』, 서울: 새물결플러스, 2020.

유요한.「한국 개신교전통의 경전읽기에 나타난 수행적 발화: 종교의례로서 성경읽기의 비교종교학적 설명」.『인문논총』 59 (2008): 451-481.

육기수.「최중진 연구: 호남지방 선교 활동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전주대학

교, 2002.

이경.『봉상교회 100년사론』. 완주: 봉상교회 100년사출판위원회, 2004.

이수진.『호남선교 100년과 그 사역자들』. 서울: 고려글방, 1992.

_____.『호남기독교 100년사: 전북편』. 서울: 쿰란출판사, 1998.

_____.「금산교회이야기: 한국기독교회사 100년을 증거하는 'ㄱ' 자 교회』. 서울: 금산교회문화재보존위원회, 1999.

전주서문교회 100년사편찬위원회.『전주서문교회 100년사: 1893-1993』. 전주: 대한예수교장로회 전주서문교회, 1999.

정옥균.「전북지역 개신교 초기 교회의 형성과 그 전개과정에 대한 연구(1892-1945년)」. 박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1999.

조기연.「순교자·성자 공경에 대한 한국 개신교회적 이해」.『신학과 실천』30 (2012): 91-117.

주명준.『전북의 기독교 전래』. 전주: 전주대학교출판부, 1998.

차종순.「미국 남장로교회의 호남지방 선교활동」.『기독교사상연구』5 (1998): 107-127.

테이트, 매티(Tate, Mattie Samuel).「인모귀도」.『호남교회춘추』5월 창간호 (1994[1910]): 79-90.

한국가톨릭대사전 편찬위원회 편.「성인」.『한국가톨릭대사전 7』.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2004.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편.『한국 기독교의 역사 Ⅰ』. 서울: 기독교문사, 2011.

_____.『한국 기독교의 역사 Ⅱ』. 서울: 기독교문사, 2012.

〈독노회〉.《한국컴퓨터선교회》2007년 11월 22일. http://kcm.kr/dic_view.php?nid=39420 (2020. 9. 28. 접속)

Cohn, Robert L. "Sainthood." *Encyclopedia of Religion* vol. 12. Lindsay Jones ed. Farmington Hills: Cengage Gale, 2004(1987).

Abstract

The Stories of Korean Believers in Early Protestantism in Jeollabuk-do as Hagiography

Minah Kim (Incheon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organize the life stories of Korean believers in the early stage of Protestantism in Jeollabuk-do and show how they can be considered as hagiography. The stories of the early Korean Protestant believers in Jeollabuk-do can be regarded as hagiography in the following respects. First, the stories feature detailed and vivid descriptions, as well as passionate expressions of emotion, similar to what one can find in a novel. Second, moved by the main characters' determination and achievements, readers tried to model their own life on these stories. The difference between Catholic hagiography and the early Protestant believers' life stories in Jeollabuk-do is that the former values miracles by God's will, while the latter emphasize the will, efforts, and actions of the main characters. In the earliest stories of Protestants in Jeollabuk-do, sufferings are largely categorized as personal and social sufferings. Again, the former can be divided into sufferings caused by disease and sufferings caused by the imposition of apostasy, and the latter into sufferings because of social status, sufferings because of failed social reform, and sufferings caused by unjust circumstances.

Key Words: Hagiography, Jeollabuk-do, early Protestantism, life stories, Kim Chang-guk, Jo Deok-sam, Yi Ja-ik, Paek Nak-gyu, Choe Jung-jin